



이주의 포커스 3 6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라이즈 4.5 제21대 대선 임하는 전북도당 6 류가연 제16대 창작극회 대표 8 영화제로 물든 전주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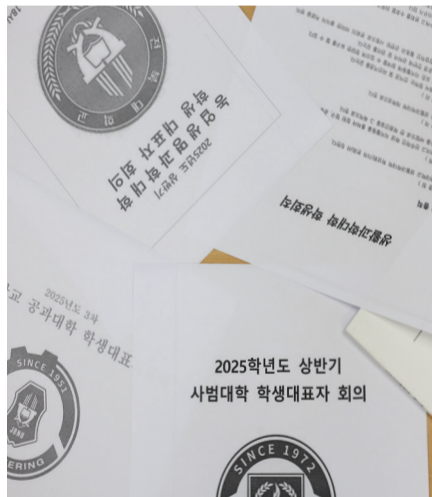
오늘만큼은 나도 락 스타! 중앙동아리 '싱건지' 학생들이 동인제 경연대회에서 지난달 29일 공연 중이다. 기타를 맡은 최원희(경제학·24) 씨는 "과분한 관심과 호응을 보내준 관객들과 싱건지 멤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있을 싱건지 정기공연도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전했다. 싱건지는 이번 달 31일 학술문화관에서 정기공연을 진행한다. <관련기사 2면> 이영재 기자 yeo7372@jnu.ac.kr

회칙 어긴 회칙개정 일삼는 단대 학생회

총학생회칙 따르면 개정 시 공고는 필수 절차
사회대·생활대·공대·농생대·사범대 공고 미이행
공고 기준 관련 회·세칙 명확한 정리 필요해

지난해부터 학생회칙 개정을 시도한 6개 단대 중 5곳의 학생회가 개정안 공고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총학생회칙 제119조에 따르면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과) 학생회는 총학생회칙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기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기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바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보고해야 하고 개정 사실과 개정안을 필수로 공고해야 한다. 총학생회칙에는 개정안 발의와 공고에 관한 조항과 개정안 공고 양식도 명시돼 있다. 지난해 11월 총선거 이후 공대, 농생대, 사범대, 사회대, 생활대, 인문대를 제외한 5곳이 명확한 공고 없이 개정을 진행했다. 사회대 학생회칙 제63조에 따르면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회장이 5일 내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사회대는 단과대회 도중 개정안을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안전을 폐기했다. 이후 임시 단과대회를 개최해 학칙을 다시 개정했다. 임수연 사회대 회장은 "불찰로 공고 과정이 누락됐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에 있어 학생회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생활대는 학생회칙 제61조에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5일 이내에 의장이 공고하

되 7일 이상으로 한다'를 따라야 한다. 생활대 학생회는 3월 25일 단과대회 이전 학과 회장단을 통해서만 개정에 대한 공고를 전달했으나 개정안은 누락됐다. 개정된 이후에 학생회칙을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를 통해 배포했다. 공대 학생회칙 제56조에는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120시간 이내에 의장이 공고하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안은 공과대학 게시판 또는 온라인 통신 매체를 이용해 공고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2월 열린 공대 단과대회에서는 회의 도중 개정안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돼 개정 안전을 폐기했다. 류이노 공대 회장은 "단운위를 통해 신규대표 및 개정안 공지 후 학과 대표자들에게 학과별 공지를 부탁한다고 구두로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단운위 공지방을 통해 배포했지만, 회칙에 명시된 정식 개정안 공고 및 공포문은 제작·배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류회장은 "학생회장으로서 회칙개정 관련 학생회칙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 미흡함으로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사과했다. 농생대 학생회칙 제44조에는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5일 이내에 의장이 공고하



만 지난달 2일 농생대 단과대회에서도 개정안 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회칙 개정안이 무효 처리됐다. 농생대는 추후 학생회칙에 맞게 재의결할 예정이다. 정의성 농생대 회장은 "학생회칙 인수인계가 미흡했다"라며 "이전부터 별다른 공고 없이 개정을 진행해 이번 개정도 구두로만 공지했다"라고 밝혔다. 사범대는 지난달 14일, 단과대회 당일에 개정안 안전을 삭제했다. 사범대 학생회칙에 따르면 제71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5일 이내에 의장이 공고하되 7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도근 사범대 회장은 "단과대회 진행 전 사범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정안을 공포하고 회칙 개정안 신규대표를 게시했으나 사범대학 학생회칙 내 개정 시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다음 단과대회에서 해당 사항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dleak@jnu.ac.kr

연즉혈

대동제에 던져진 질문들

대동제 공지가 올라온 뒤부터, 여론이 뜨겁다. 특히 연예인 구성과 재학생 구역 출입 등에서 의문점이 제기됐다. 본래도 우리학교의 가장 큰 행사인 대동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그 비중이 더욱 커졌다. 심지어는 '대동제에 연예인을 얼마나 잘 불렀나'가 총학생회 임기를 평가하는 제1요소가 됐다. 이런 변화에 따라 총학생회에서도 더 인기 있는 연예인을 부르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동제의 출연진 구성은 역대급이라고 평가받았다. 대동제 총학생회는 임기 시작하자마자 연예인 무대 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총학생회장이 직접 메일을 보내 잔나비를 섭외한 일화도 유명하다. 올해는 예년보다 못한 출연진 구성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조건이 다를까 싶지만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대동제 예산은 총학생회비와 학교의 경상보조금, 그리고 외부 업체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외부 업체 지원금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학교 지원의 경우,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전북대학교 대동제 행사 용역' 제안요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취업진로처에서 출연진 섭외와 무대시설장치를 위한 용역 업체를 구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1억 90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음으로 학생회비 납부율도 비슷하다. 지난해 총학생회비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3월 25일 기준으로 8590만원이 수납됐다. 이유희 총학생회도 총학생회비 인포그래픽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아직까지 게시하지 않았다. 4월 6일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8623만원이 수납됐다. 오히려 올해가 학생회비 납부율은 더 높다. 동등한 조건이지만 구성이 크게 달라진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사전 공지 없이 학생회비 납부자로 재학생 구역 출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리학교에서 처음으로 재학생 구역을 만들었던 지난해에도 이러한 제한은 없었다. 또한, 학생회비 추가 납부 같은 구제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역시 어떤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는지 의문이 남지만, 이유희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교외 부스에 참가하는 종교 단체 또한 사이버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후보 시절, 정종인 부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학우들의 참여란, 의견이 직접 반영되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을 강조하며 당선된 이유 총학생회다. 실제로도 소통창구 다변화나 업무 과정 공유, 중간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동제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이영재 | 대학여론부장

재선거 통해 학생회 구성...화·세칙 개정은 숙제

보궐선거 중선위 해산 이후 재선거 위한 중선위 구성
단일 선본 4곳 모두 찬성률 50% 넘기며 당선 확정
학과 특수성 고려해 피선거권 관련 조항 개정 필요

학생자치기구 재선거를 통해 자연대, 융합자율전공학부(이하 융자전) 등의 학생회가 이번 달 2일 구성됐다. 2학기 이수자의 피선거권 문제, 융합자율전공학부 피선거권자 부재의 문제 등은 숙제로 남았다.

▲ 자연대, 의대, 치대, 융자전, 2 단일 선본 모두 당선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보궐선거 중선위) 해산 이후 재구성된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선거 중선위)를 통해 진행됐다. 당초 보궐선거 중선위는 회칙을 위반한 위원장단 구성, 위원장의 독단적인 위원선발과 선거 일정 진행, 융합자율전공학부에 잘못된 정보 안내 등으로 파행을 빚었다. 이에 신문방송3사 특별위원 3인이 사퇴했고, 이후 보궐선거 중선위원회는 선거 중단 공지와 함께 해설했다. 이후 회칙 개정을 통해 재선거 규정 신설로 꾸러진 재선거 중선위가 선거를 주관했다.

이번 재선거 대상 단위는 자연대, 의대, 치대, 융자전1, 융자전2,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생명공학과로 총 9곳이었으나 이 중 4곳만이 후보를 등록했다. 자연대에서는 '늘' 선본의 최원석 정후보와 정민지 부후보가 출마했다. 융자전1에서는 이상혁 정후보와 정희성 부후보가, 융자전2에서는 강민서 정후보와 송정민 부후보가 등록했다. 무역학과 '파도' 선본에서는 조영재 정후보와 강은지 부후보가 출마했다. 의대와 치대, 경영학과, 회계학과, 생명공학과는 후보 불출마로 선거가 무산됐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단위는 50% 이상의 지지로 당선됐다. 먼저 자연대 '늘' 선본은 투표율 58.50%와 찬성률

92.12%로 당선됐다. 융자전1 선본은 투표율 67.16%와 찬성률 91.67%, 융자전2 '이음' 선본은 투표율 84.62%와 찬성률 85.71%로 당선됐다. 무역학과 '파도' 선본은 투표율 58.67%와 찬성률 93.13%로 당선됐다.

자연대 '늘' 선본 최원석 정후보는 "민고 투표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늦게 시작한 만큼 학우분들이 부족함 없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학생회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계열 모집으로 소속감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학우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늘 학생회는 신입생들의 적응을 위해 단체 차원에서 '친해지길 바라'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자연대 체육대회인 자연체전과 자연대 축제 등의 행사 참여 후 스탬프를 받아 마일리지를 쌓는 마일리지 제도, 학생들의 과 선택을 돕기 위한 진로선택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융자전1 선본 이상혁 정후보는 "학우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1학년만 모인 학과인 만큼 단합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하고 학우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융자전2 '이음' 선본 강민서 정후보는 "신설된 학과이기에 첫 학생회가 더욱 중요할 것 같다"라며 "직책의 무게감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특성과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학우들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현실 반영한 피선거권 보장 필요"

이다빈 기자 dleak@jnu.ac.kr

재선거 관련해 제기됐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먼저 이수 학기에 따른 피선거권 문제가 있다.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3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간호대와 의대, 수의대와 같이 실습으로 중운위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의 피선거권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었다. 당시 선거를 관리하던 제56대 선거관리위원회는 간호대 요청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세칙과 회칙에 3학기 이상으로 명시돼 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2022년 제55대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피선거권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됐으나,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여전히 3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에게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제2차 전학대회에서의 학생회칙 개정에서도 피선거권 조항의 개정은 빠졌다. 구민기 총학생회장은 "단과대학은 각 단과대학의 시행세칙을 따르기 때문에 선거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며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3차 전학대회에서 추가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명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융합자율전공학부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선거권 부재 또한 문제다. 융합자율전공학부는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11월 학생자치기구 총선거가 치러지는 시기에 피선거권자가 부재하게 된다. 이도근 재선거 중선위원장은 "추후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위 및 총학생회장단,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구민기 총학생회장은 "융합자율전공학부의 특수성을 고려해 앞으로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부 운영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다빈 기자 dleak@jnu.ac.kr

동아리인들과 함께한 '소년지락' 동인제

유년기 회상할 수 있는 각종 부스 운영
공연분과 나래짓 경연대회 대상 수상
가수 카더가든이 축제의 대미 장식해

우리학교 동아리 축제인 동인제가 알림의 거리와 건지광장 일대에서 지난달 29일 성황리에 진행됐다.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는 동인제에 '소년지락, 젊은 날의 즐거움'이라는 표어를 붙였다. 소년지락이란 젊은 시절의 즐거움 또는 청춘의 기쁨이란 뜻을 담고 있다. 표어처럼, 이번 동인제는 부스부터 동아리 경연 대회, 대미를 장식한 연예인 무대까지 '청춘'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청색계열의 복장이나 소품이 드레스코드로 제시됐고, 이를 인증할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또한 굿즈로 드레스코드와 동일하게 청색 반다나를 판매했다.

오전 10시, 알림의 거리와 건지광장 인근에서 부스와 플라마켓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구경꾼 방향의 알림의 거리 초입에는 외부 부스가, 동아리 박람회 부스와 총동연 부스는 문화루 쪽에 배치됐다. 총동연은 일기 형식의 퀴즈, 물총으로 오리 맞추기, 제시어와 상관없는 단어 말하기 등의 부스를 운영했다.

동아리 박람회에는 전시분과 시답사와 아름, 종교분과 CCC와 원불교 학생회, 농생대 소원 로타랙트와 전북대학교4·H회, 가들록 동아리 코스모스가 참여했다. 지

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국가보훈부 등 외부기관 부스도 운영됐다. 손예은(사화화·24) 씨는 "동아리 박람회 부스 중에서 명상 부스가 기억에 남는다"라며 "동인제를 통해 평소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해 좋았다"라고 했다. 오선민(사학·23) 씨는 "마침 날이 좋아 여러 부스도 즐기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주간 부스는 오후 5시까지 운영됐다.

야간에는 제2학생회관 주차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야시장이 열렸다. 주차장 기준으로 제2학생회관 쪽에는 야시장이, 예대3호관 쪽에는 무대가 설치됐다. 본격적인 공연 시작에 앞서 개막식이 있었다. 총동연 회장단이 먼저 야간 무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이후 이민규 총동창회 사무처장과 조동휴 학생취업진로처장이 축사와 함께 지원금, 격려금을 전달했다.

동아리 경연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공연, 밴드, 댄스 3가지 분야 12팀이 진출했다. 밴드 분야에 야망, 싱건지, 하늘남, 토러스. 공연 분야에 엔터, 즈웨거, 노모스, 브릴란테. 그리고 댄스 분야에 에이투지, 나래짓, 핏어팻이 참가했다. 동아리들은 각자 준비한 무대로 축제의 열기와 흥을 돋웠다. 경연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었

는데, 중간 시간에 현직 총동연 회장단이 지난해 회장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소년지락이란' 코너가 진행됐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글귀를 제출받았고, 회장단 등이 즉석에서 선발해 상품을 지급했다. 김가희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소년지락이란 세상의 무게를 아직 모를 때 그 무게조차 웃으며 들어 올릴 줄 아는 마음이다"라는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동아리 12팀의 무대가 모두 끝난 뒤, 수상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공연분과 댄스동아리 나래짓, 최우수상에 공연분과 밴드동아리 야망, 우수상에 댄스동아리 핏어팻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지막으로 가수 카더가든의 무대가 동인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동인제가 대학생활의 첫 축제였던 황은수(사회과학계열·25) 씨는 "부스와 공연 등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기대한 만큼 재밌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동인제는 예년과 달리 제2학생회관 주차장 인근에서 진행됐다. 김가희 회장은 "동아리 행사는 다른 곳보다 단체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며 "안전 확보를 위해 공간이 더 트인 제2학생회관에서 동인제를 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동인제에서 특히 예선 경쟁이 치열했다"라며 "많은 동아리가 지원하고 동아리인들이 참석해 더욱 행사가 빛났다"라고 전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영재 기자 yeo7372@jnu.ac.kr

우리학교, '창업중심대학' 최고등급 우수 획득 3년간 지속해 온 사업으로 창업 지원력 입증

우리학교가 '2024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탁월한 결과를 보여줘 '창업중심대학'사업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A)등급을 받았다.

우리학교는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창업 아이템 발굴과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평가를 통해 2년간 예산, 행정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형성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더불어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높이는 등의 세계 시장 확대도 계획 중이다.

창업지원단 이소정 담당은 "앞으로도 창업 혁신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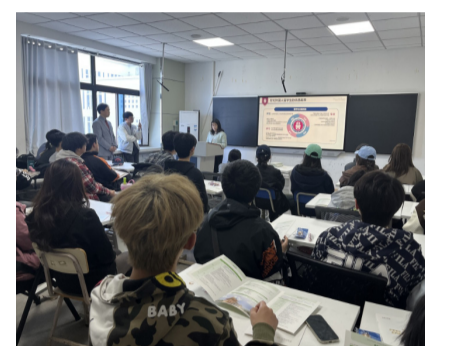
유예영 기자 greenfrog0413@jnu.ac.kr

연태 JBNU 국제센터 개소 통해 해외 유치 확대 모로코·태국에 이어 세 번째 JBNU 국제센터 설립

우리학교가 중국 산둥성 연태대학교에 제3호 JBNU 국제센터를 개소했다.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 확장을 목표로 설립된 연태 JBNU 국제센터는 지난해 설립된 모로코와 태국 센터에 이어 세 번째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는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 상담, 입학 설명회, 문화교류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협력 기관과의 구체적인 방안 논의 및 입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에 더욱 힘을 전망이다.

박솔기 국제협력부 팀장은 "JBNU 국제센터는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국가



의 학생들이 한국 유학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서 기자 hyunseo@jnu.ac.kr

취업진로지원과,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 진행 채용설명회 3·4회차, 상담회 2회차 참여자 모집 중

우리학교 취업진로지원과가 5월 한 달간 채용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돕는다.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에는 에너지, 정보보안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등 실제 채용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기업 소개, 채용 절차와 같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기업 담당자들이 생생히 전달한다. 채용설명회는 취업진로지원과 홈페이지에서 운영일 전

날까지 사전 신청 또는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 행사는 참여자 명부 작성자를 대상으로 큰사람 포인트 항목 중 채용설명회 부문 포인트가 부여된다.

강수미 취업진로지원과 주무관은 "이번 채용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익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서연 기자 seyon0202@jnu.ac.kr

제41대 최병선 총동창회장 연임 확정 "장학 사업부터 백서 발간까지 계획"

최병선(치의예·86졸) 총동창회장이 지난 제40대에 이어 제41대 총동창회장을 연임한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지난 4월 3일과 4일 진행된 제41대 총동창회장직 후보자 접수에 단독 출마했다. 이에 동창회칙에 따라 투표 없이 지난달 27일 최병선 총동창회장의 제41대 총동창회장직 임기가 연장됐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의 임기는 2027년 대의원회까지이다.

이번 임기에서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장학 사업 확대와 총동창회 역사 기록 작업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총동창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과 재학생 장학금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예정된 사업으로는 △고려인 후손 장학금 △대학원생 연구지원 장학금 △총동창회 70주년 백서 발간 작업 △순라인 소포몰 운영 △총동창회 와인 판매가 있다.

최병선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가 중심이 돼 모교와 동문, 재학생 간의 연결을 긴밀히 할 것"이라며 "전북대 학생들이 총동창회의 도움으로 큰 꿈을 꾸고 훗날 후배를 이끄는 선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나경 기자 y00njk@jnu.ac.kr



▲설량 '백'번 발린 거짓말

• 반값 할인이예요~ 국산이예요~ 홍보했던 음식이 사실은 반값도 국산도 아니었대며? 알고 보니 소비자 때 본 코리아 ㅋㅋ
• 골목에서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더니. 알고 보면 자기가 거짓말 제일 많이 했을 듯. 이게 바로 흑과 백인가?
• 거짓말쟁이었던 장사 천재, 어디서 감 놔라 '백' 나락?!
나경 y00njk@jnu.ac.kr

▲사모님 바뀌고, 유심은 그대로

• MC : 대형 통신사 해킹으로 당당히 대상을 거머쥔 수상자를 만나보겠습니다!
• 해커 : 암호화도 안 하고, 대처도 늦은 통신사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통신사에게 돌립니다.
• MC :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통신사 회장님은 유심 교체 1771억은 아끼시면서 아내 교체비용 2조는 왜 그냥 '태원'을까요?
예영 greenfrog0413@jnu.ac.kr

우리학교, 라이즈 사업에 총 30개 사업 선정

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우리학교, 글로컬과 라이즈 연계 기대
전북센터, 산업계 전문인력 지원 예정
전북 라이즈, 청년 정주율 제고가 핵심

우리학교가 전북 RISE(이하 라이즈) 사업 공모에서 최종 30개 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라이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교육부의 예산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위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인 지역혁신플랫폼(RIS), 산학협력(LINC), 평생교육(LIFE), 직업교육(HIVE), 글로컬대학30, 의대 교육혁신 등을 라이즈에 통합해 2조 4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라이즈 사업 지원으로 83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생명·전환 산업 혁신, 지역 주력산업 성장, 평생교육 가치 확산, 동행협력 지역 발전이라는 단위 과제를 포함한 4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학교, 전북도 전체 사업 중 1/4선정

우리학교는 생명·전환 산업 혁신과 지역 주력산업 성장, 동행협력 지역 발전에 지원했다. 각 단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한 뒤,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평가 및 선정은 전북라이즈센터와 전북라이즈위원회가 맡았다. 우리학교 라이즈 사업단은 64개의 사업을 제안했고 이중 30개 사업 운영이 확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 지원 사업 127개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생명·전환 산업 혁신 프로젝트 '생명·전환 사업 특성화 인재 양성' 단위 과제는 44개의 학과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해 특성화 인재 양성 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다른 단위 과제인 'JB-연구 클러스터 구축'은 책임교수들이 각자 연구를 수주해 운영한다. 책임교수와 참여교수까지 총 50여 명 규모다. 해당 과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돼 지역 연구소와 기업, 대학이 협력한다.

지역 주력산업 성장 프로젝트에서는 '해외 우수 인재 원스톱 지원'과 'JB-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단위 과제에 지원했다. '해외 우수 인재 원스톱 지원'은 유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다. 시그니처 과제인 'JB-스타트업 캠퍼스 구축'은 우리학교에서 운영 중인 현장실습센터와 창업 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운영될 계획이다. 손정민 단장은 "우리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창업 중심 대학 사업으로 과

제 이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동행협력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요청이 있는 과제들을 발굴해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과제는 컨소시엄으로 진행돼 지자체와 산업, 대학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단위 과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방침에 따라 별도 공고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선정을 통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사업 간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손정민 단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이 대학 내 체계를 바꾸는 사업이라면 라이즈는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연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대학30 사업 목표인 유학생 유치와 라이즈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과 같이 두 사업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대학30을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면 라이즈를 통한 지원으로 정주까지 이어지는 식이다. 손정민 단장은 "두 사업을 모두 운영하는 대학에는 사업 구상에 차별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권고사항이 있었다"라며 "두 사업이 서로 보완하며 진행할 수 있게 계획을 작성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학교의 본격적인 라이즈 사업 운영은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라이즈 사업단은 그전까지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하고 업무 협력이 필요한 부처와 소통해 준비를 마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정민 단장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 실감하는 것은 올해 가을쯤 될 것 같다"라며 "전공 분야에서 배웠던 지식을 라이즈 사업을 통해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북라이즈센터의 역할은 '지원'

올해 라이즈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전북라이즈센터도 분주해졌다. 채수찬 전북라이즈센터 센터장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과정이 있었지만, 라이즈는 올해 처음 출범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라이즈가 운영되는 5년간 교육부 정책 외 다른 정부 부처의 정책과 사업도 라이즈에 연계돼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에 채수찬 센터장은 "현재 라이즈가 흡수한 RIS, LINC, LIFE, HIVE 등의 사업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흡수될

다른 부처 사업들을 고려해 라이즈는 아직 발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라이즈센터의 역할 중 대학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과 산업, 대학 협력에서 교수나 연구원이 산업 생태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산업 생태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북라이즈센터는 전문인력을 총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수찬 센터장은 지역 혁신에 대해 "전북라이즈센터 업무를 시작하고 보니 지역 불균형이 실감 난다"라며 "전북라이즈센터의 지역 리더 역할을 통해 혁신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라이즈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학과의 소통이다. 지금까지 대학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교육부와 주로 교류했다. 하지만 라이즈가 시작하면서부터는 지자체, 지역라이즈센터 등 협의 대상이 추가됐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학은 지자체와 협력에 적응하며 라이즈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등교육 전문가를 파견해 지자체, 지역라이즈센터와 대학의 소통을 돕고 있다.

▲전북도, 전략 기반 4대 프로젝트 제시

전북특별자치도는 '함께 성장! 함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의 유입을 확대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지역산업-대학정책 상생연계, △권역별 일자리·인재 혁신, △지역균형 평생학습 도시, △공유·협업 문화 확산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첫 번째 생명·전환 산업 혁신은 대학 내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을 통한 지역 신산업육성을 주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로 지역 주력산업 성장은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성장을 도모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공계 박사 학위 취득자의 정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라이즈 시그니처 과제인 'JB-스타트업 캠퍼스 구축'이 포함됐다. 김현영 조대 라이즈위원장은 한국대학신문 인터뷰에서 "라이즈 시그니처 과제는 사·도가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마련한 가장 해결이 필요한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평생교육 가치 확산은 고등교육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성인 학습자에게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네 번째 동행협력 지역 발전은 지역 현안을 대학과 산업, 지역이 협력해 함께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지역 현안과 대학을 1:1로 연계해 협력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홍시연 기자 hongsi@jnu.ac.kr

지역발전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협약

기존 자문제도 문제 개선 위한 새로운 제도 구성

JBNU지역발전연구원(이하 지역발전연구원)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상호 보완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

주요 협력 내용인 'J-Dotor'제도는 기존 자문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된 다발성 자문 방식이다. 기존에는 일회성 자문이 주를 이룬다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개선됐으며 현재 전문가 집단과 분야별 연구회를 구성 중이다. 한편 두 기관은 개선된 자문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과 기업 지원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지역발전연구원 강미라 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유예영 기자 greentrog0413@jnu.ac.kr

취업진로지원과, 상반기 마지막 면접 집중교육

기초과정 4차·심화과정 7차로 나눠 실전 대비 강화

우리학교 취업진로지원과가 상반기 면접 집중교육 기초과정 4차·심화과정 7차를 오는 22일, 29일에 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한다.

상반기 면접 집중교육에서는 면접 준비의 기본부터 실전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다룬다. 본 교육은 3, 4학년を対象으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상반기 마지막 차수인 기초과정 4차와 심화과정 7차는 각각 이번 달 5월 22일, 29일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다.

블루벨트 필수항목인 기초과정 4차에서는 기본 태도, 자기소개 준비법 등 면접의 기초적인 정보를 전한다. 레드벨트 필수항

목인 심화과정 7차에서는 실전을 대비하기 위해 면접 연습 후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차수부터는 생성형 에이아이(AI)를 활용한 면접 전략도 새롭게 다룬다. 이번 기초과정 4차와 심화과정 7차는 취업진로지원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할 시 각각 큰사람 포인트 30점과 40점이 지급된다.

취업진로지원과 측은 "준비 답변에 대한 맞춤 피드백을 제공하기에 실제 면접 대비에 유용할 것"이라며 "각자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길 권한다"라고 참여를 장려했다.

최서연 기자 seyon0202@jnu.ac.kr

NCS 직업기초능력·기업 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

1차 대기업 직무적성 기초반, 2차 NCS 기초반 운영

우리학교 취업진로지원과가 NCS 직업기초능력 및 기업 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을 이번 달 26일부터 4일간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NCS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적성검사 집중교육은 3, 4학년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 교육의 1차 대기업 직무적성 기초반 교육은 내일(15일)까지 진행되며, 2차 NCS 기초반 교육은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2차

NCS 기초반 교육은 실전형 문제와 함께 해설·전략을 제공해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교육에 참여할 시 큰사람 포인트 30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진로지원과 홈페이지에서 오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세현 취업진로지원과 주무관은 "취업 준비는 언제 시작하는지보다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스스로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서연 기자 seyon0202@jnu.ac.kr

신입생 6대 핵심 역량 평가 진행

자가 진단을 통한 진로 설계 기회

우리학교 IR 센터가 6대 핵심 역량 평가를 오는 30일까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평가를 주관하는 IR 센터는 대학 내 데이터 수집 분석을 담당한다. 이번 평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6대 핵심역량은 창의, 실무, 도전, 문화, 소통, 인성이다. 평가는 자기보고형 70개, 직무적성검사 기반 시험형 18개로 총 88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IR 센터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신입생들의 취업, 교육훈련 대비를 기대하고 있다. 평가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오아시스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문항 전체를 완료한 학생에게는 △대학 생활과 진로 설계 참여 시수 1시간 인정 △큰사람 포인트 10점 부여 △선착순 400명 모바일 상품권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학교 IR 센터 관계자는 "현재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을 진단할 기회"라며 "강점과 약점 파악이 가능해 신입생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윤나경 기자 y00mk@jnu.ac.kr

우리학교, 국방사업관리사 교육과정 운영대학 발탁

"국가 방위산업 발전의 중추 되도록 할 것"

우리학교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이 주관하는 '2025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교육과정 민간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국방사업관리사는 국방 분야 유일한 자격증으로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들에게 필수로 여겨진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방위사업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방위산업융합전공 학부 과정을

설립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선정을 통해 방위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실무 중심의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산업연구소 강은호 과장은 "국가 방위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유예영 기자 greentrog0413@jnu.ac.kr

건지찰각



메마른 건지광장 중앙분수대

우리학교 건지광장 중앙분수대가 3월부터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설과는 "분수대 내부 배관이 파손돼 보수공사가 필요해 작동을 멈췄다"라며 "현재 예산 확보 중에 있으며 곧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7월 시작해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예영 기자 greentrog0413@jnu.ac.kr

지역 발전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위해 일자리 확대 필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넉 달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됐다. 우리나라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두 번째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전북권역대학신문사 기자단(국립군산대신문, 우석대신문, 원대신문, 전주교육대신문, 전북대신문, 전주대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전북 지역, 그리고 청년을 중심으로 질의를 나섰다. 답변 순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호 순이다. <역은이 밝힘>

청년 정주여건 마련 일자리 확보가 핵심

최근 전북의 청년 인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순이동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북 청년 인구 유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해결책이 있다면 함께 듣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 큰 틀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청년 인구 유출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일자리도 수도권 중심이라 지금 전북은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늦었지만, 세계가 탄소 중립 체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해 도약해야 할 것이다. 전북이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를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 전북 청년 인구 유출의 근본적 원인은 일자리에 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청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난다. 주거나 복지 등의 요소도 결국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비로소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전북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우량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이미 전북은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이 잠재력을 활용해 탄소 산업과 수소 산업, 정읍시의 바이오, 스마트 농생명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혁을 할 것이다.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남게 될 것이고, 주거와 복지, 그리고 지역 경제 전반이 자연스럽게 살아

날 것이다. 청년들이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닌 머물고 싶은 전북을 만들겠다.

전북에서 성장한 청년이 정착하고 다른 지역 청년이 이곳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전북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교통은 수도권과 연결성이 부족해서 청년이 전북 선택을 고민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년층의 전북 정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 | 청년들을 이곳에 남게 하고, 이들을 불러오는 것은 전북의 많은 정치인이 짊어진 무게다. 당연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산업적 요소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청년들이 전북을 선택할 것이다. 문화적인 요소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북에 왔을 때 "재미있고 유쾌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문화와 풍토를 변화시켜야 이곳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남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수도권과의 연결성은 대표적으로 철도를 짊을 수 있는데, 현재 전라선 복선화를 추진하고 있다. 짧은 시간 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4년 내외로 케이티엑스(KTX)를 비롯해 에스알티(SRT) 열차까지 더욱 많은 배차를 이끌어 내겠다.

▲국민의힘 | 전북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 시절부터 지역 주요 산업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다른 지역의 청년들도 전북을 선택할 수 있게 손색없는 문화, 여가적인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문화·여가 공간과 청년 커뮤니티 공간 등이 동시에 잘 갖춰진 곳이어야 한다. 교통 문제는 전북의 교통 중심지가 익산시나, 산업이나 인구가 집중된 전주 시에서 비효율적인 노선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 대광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특별법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해 도로법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교통편이 잘 마련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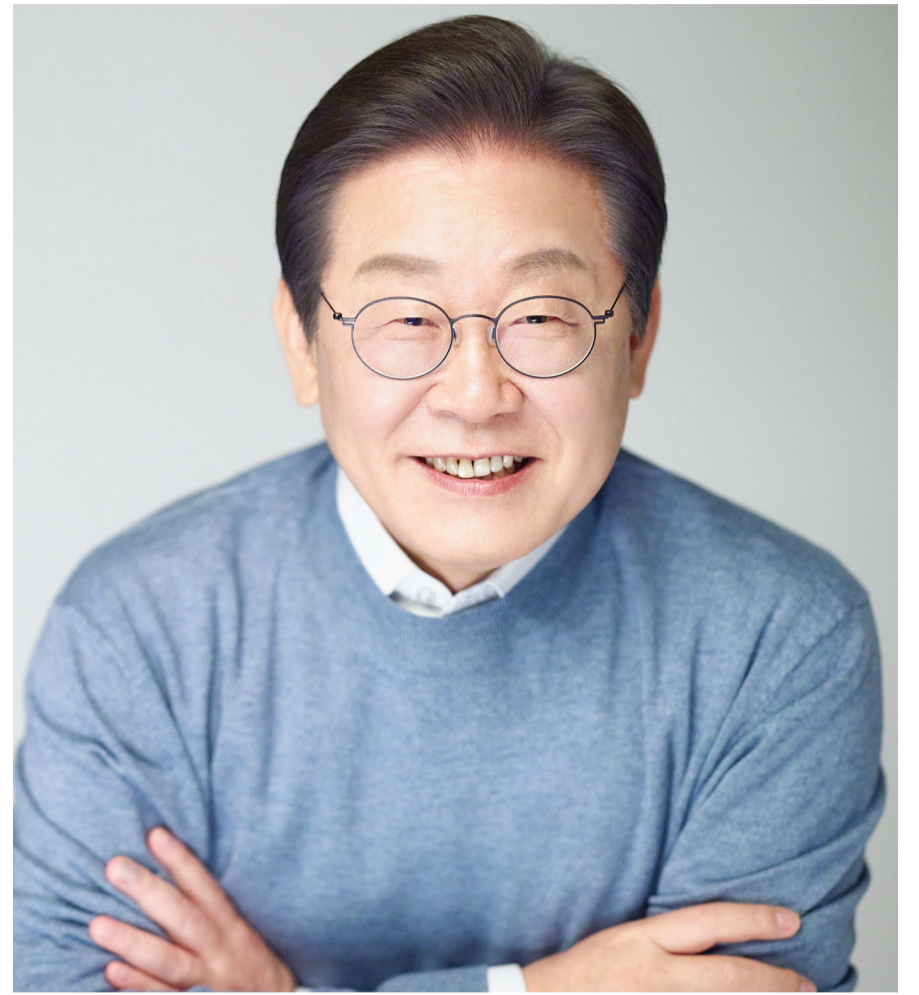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주로 대기업 중심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에 터를 잡고 있는 대기업이 많지 않다. 물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앞서 질문한 청년들의 정착이나 유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 유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 대기업도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올 유인책이 필요하다. 알이(RE)100 산업단지들 새만금에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가 구축되면 대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것은 차기 정부와 전북 정치권이 뭉쳐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농협중앙회나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 우리는 다른 정당에 비해 대기업과의 유대 관계가 상대적으로 돈독하다고 생각한다. 전북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됐다. 하지만 투자 자원이거나 인력 등과 같은 기반은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의 유대 관계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협조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다방면적으로 노력하겠다.

전북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다. 이번 대선에서 전북의 농민들을 위해 준비한 정책이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제법인 '농안법'을 제안한다. 전북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농민의 비율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농민들의 생존은 농산물의 가격에 달려있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한 해 농사가 망하고, 경제적 원인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통해 농민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 재난안전기 본법에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생계 구호와 복구 수준으로만 지원한다. 이는 충분한 지원이 아니기에, '농업재해대책법'을 구축해 농민들의 피해액 중 60~70%를 지원하여 차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새만금의 지리적 요소 활용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국민의힘 | '전북 맞춤형 산업지구 조성 계획'을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전북의 강점을 살려 농생명 산업의 집적화와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농민이 모두 잘사는 전북을 만들 것이다. 이미 준비된 '전북 맞춤형 산업지구 조성 계획'을 통해 남원시 '에코스마트팜 산업지구', 순창시 '미생물농생명산업지구', 고창시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 김제시 '논농산업 거점지구', 마지막으로 진안군에는 '홍삼한방산업 진흥지구' 등을 설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생명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해 청년 인재를 키우고, 지역 내 일자리와 부가 가치를 동시에 높일 것이다. 전북의 농어민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민의힘은 전북을 살리는, 농생명 산업의 확실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전국에서 장애인과 고령층 등에 대한 복지혜택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홍보 방식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정책이 실질적 수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시행됐던 장애인들의 '사회적 공공형 일자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당시 정책에 대해 설명하자면,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직접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에 취약한 장애인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설명을 듣는 장애인들도 더 많은 복지와 정책을 알 수

2024회계연도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결산

◎ 2024회계연도 대학회계 결산 확정 : 2025. 4. 30.(수)

◎ 2024회계연도 대학회계 결산 규모 : 세입 결산액 489,381백만원, 세출 결산액 370,393만원, 잉여금 118,988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세입(관·항)	'24년 결산금액	'23년 결산금액	증감	
			금액	비율
합 계	489,381	468,387	20,994	4.5
1. 이전수입	219,569	209,301	10,268	4.9
○ 중앙정부이전수입	215,594	206,684	8,910	4.3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975	2,617	1,358	51.9
2. 자체수입	155,637	167,996	△12,359	△7.4
○ 교육활동수입	85,510	87,423	△1,913	△2.2
○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1,382	1,307	75	5.7
○ 사용자 및 수수료수입	17,250	17,128	122	0.7
○ 부담금	1,835	3,809	△1,974	△51.8
○ 자산매각수입	8	3	5	166.7
○ 이자수입	3,315	2,843	472	16.6
○ 제재금수입	22	8	14	175.0
○ 기타수입	46,315	55,475	△9,160	△16.5
3. 세외잉여금	112,982	88,578	24,404	27.6
4. 내부거래 및 기타	1,193	2,512	△1,319	△52.5

세출(정책사업)	'24년 결산금액	'23년 결산금액	증감	
			금액	비율
합 계	370,393	355,405	14,988	4.2
01 유아교육	420	384	36	9.4
02 인적자원운영	177,095	173,620	3,475	2.0
03 교육활동운영지원	5,162	5,402	△240	△4.4
04 산학연활동지원	3,486	3,988	△502	△12.6
05 교육복지지원	4,048	3,842	206	5.4
06 학교교육여건개선	80,990	77,391	3,599	4.7
07 교육행정일반	31,271	28,312	2,959	10.5
08 수입대체경비	19,343	18,319	1,024	5.6
09 보조금 및 지원금	48,578	44,147	4,431	10.0

※ 결산 및 재무제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정보-대학현황-예산현황] 참조

있기에 사회적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 전국에서 강화되면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들에게 알려주다 보니, 눈높이에 맞춰 더 잘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 우선 장애인 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장애인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현장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불편한 홍보 방식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무조건 간소화하는 것은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도울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준비했다. 우선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현 765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다. 지역 장애인 보건센터도 현 19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산부인과를 확충하고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민주, 공공의대 통과 국힘, 의료개혁부터

전북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 공공의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연내 통과'이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다만 현재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증원이 아니다.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달리 원래 있던 자원과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년에 관련 법이 통과되면 차기 정부 안에 공공의대가 우리 곁에 와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의료 소외지역이나 취약지역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 사안을 막론하고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시작돼야 할 것은 '의료개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포문을 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쉬이 예측할 수는 없다. 의료 인력이 확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대를 설립하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나, 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보단 활용 방안 고민 필요

2028년까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해수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과거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던 갯벌을 복원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없나?

▲더불어민주당 | 새만금이 개발된 지 올해로 36년 정도 됐다. 만약 그때로 돌아가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겠느냐고 물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 현재 육지화돼 있는 부분을 다시 갯벌화하라고 하면 더 복잡해 질 것이니, 육지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개발해야 한다. 36년 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방조제로 막아놓은 부분에 해수를 유통한다면 수질이나 각종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매립되지 않은 곳에 대한 고민이 남았는데, 개발하지 않는다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쪽의 저항이 거세겠지만, 환경단체는 환영할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큰 틀에서는 해수 유통을 통해 수질 개선을 달성하고, 육지화된 곳은 연안을 따라 수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 | 새만금에 수변도시를 포함한 산업단지나 기타 시설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폐수 처리'라고 알고 있다. 이번에 아차전지 기업을 유치했음에도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아 개발에 속도가 더디다. 수변도시는 고사하더라도 폐수 처리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반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새만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데, 개발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겠지만 환경은 불가피하게 파괴된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미 개발이 된 상황에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그 과정에서도 환경이 파괴되고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허물기보다는 원래 있는 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그러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에서 드러난 조직 구성, 예산 확보, 인력 배치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전북이 올림픽 유치에 최종 성공한다면, 어떤 보완 전략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로 들어서면 하계 올림픽 유치를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올림픽은 전북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전국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올림픽 진행 시, 모든 경기를 하나의 도시에서만 해야 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입장을 바꿔, 전북에도 기회가 온 것이다. 서울시가 비록 후보에서 탈락했지만, 서울시의 경기장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가 필요한 곳에 힘을 쏟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국민의힘 | 하계 올림픽 유치는 전북만의 힘으로 쉽지 않은 도전이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이는 결코 전북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이 함께하는 국가적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준비 단계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결집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도울 것이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에서 드러난 문제를 철저히 복기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조직, 그리고 촘촘한 계획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함께해 나가겠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 공항 건설과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공항 역시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조류 서식지와 짧은 활주로 길이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보는가?

▲더불어민주당 | 현재 문제점으로 크게 꼽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활주로 길이이다. 지금은 저가 항공 기준의 활주로 길이이다. 유럽이나 남미로 가는 비행기를 띄우려면 활주로를 늘려야 한다.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부가 계속 길이 연장을 막았으나 이번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활주로 길이를 모두 연장하는 방식을 취할 전망이다. 우선 활주로 문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길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다. 철새 부분은 인천공항과 같은 다른 공항들의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전북의 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혁, 일자리 확보를 통한 청년의 정착과 유입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며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의 매뉴얼을 참고해 철저히 규정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을 제안한 상태다. 따라서 미연의 사고 위험성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부차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규모와 위상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때 문제도 이를 전문적으로 쫓는 업무가 있다고 알고 있다. 국제공항인 만큼 그 위치에 맞게 업무가 적절히 배치돼야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다. 단순히 공항을 개항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도민들도 잘 이용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고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약 3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전북도민 특히, 청년세대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계획이 공급하다.

▲더불어민주당 | 전국 경제 성장을 보던 역대 민주당 정부가 그 역할을 공고히 해왔다. 우리 청년이 전북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곳에서 정착해 일하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민주당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전북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시기를 바란다. 믿고 투표해 주신만큼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국민의힘 | 전북은 다양한 정치 경험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북에 국민의힘을 영입해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해 주시면 좋겠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과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예령 기자 2to0@pnu.ac.kr

전북대학교 2025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 2025. 4. 30.(수)

◎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 399,560백만원(기정예산 대비 63,655백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

세입(관·항)	'25년 제1회 추경 예산	기정예산	기정대비 증감	
			금액	비율
합 계	399,560	335,905	63,655	19.0
1. 이전수입	201,773	193,399	8,374	4.3
○ 중앙정부이전수입	198,422	190,743	7,679	4.0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51	2,656	695	26.2
2. 자체수입	148,381	135,848	12,533	9.2
○ 입학금	272	272	-	-
○ 수업료	81,441	81,441	-	-
○ 계절학기 및 최고경영과정 수업료	594	594	-	-
○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5,200	4,619	581	12.58
○ 전형료	1,215	1,215	-	-
○ 논문심사로	250	250	-	-
○ 사용자 및 수수료수입	3,899	3,899	-	-
○ 생활관 사용자수입	12,822	12,822	-	-
○ 부담금	3,577	3,577	-	-
○ 자산매각수입	1	1	-	-
○ 이자수입	3,048	3,048	-	-
○ 제재금수입	5	5	-	-
○ 기타수입	36,056	24,105	11,951	49.6

3. 세계잉여금	49,227	6,500	42,727	657.3
4. 내부거래 및 기타	179	158	21	13.3

세출(정책사업)	'25년 제1회 추경 예산	기정예산	기정대비 증감	
			금액	비율
합 계	399,560	335,905	63,655	19.0
01 유아교육	426	420	6	1.4
02 인적자원운영	186,363	179,413	6,950	3.9
03 교육활동운영지원	6,983	6,427	556	8.7
04 산학연동지원	4,400	4,250	150	3.5
05 교육복지지원	4,655	4,596	59	1.3
06 학교교육여건개선	82,965	63,251	19,714	31.2
07 교육행정일반	46,065	33,763	12,302	36.4
08 수입대체경비	20,671	19,119	1,552	8.1
09 보조금 및 지원금	47,032	24,666	22,366	90.7



65년 전통 가진 창작극회 제16대 단장 류기연 대표

배우와 연출로 연극 20년, 무대 설 때 살아있음 느껴

아버지 바람 담긴 이름, 그의 운명이 되다
연출가와 배우 두 관점에서 경험한 연극
“모든 배우가 조명받는 무대 만들 것”

“연극으로 마음과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연출과 배우, 두 영역 모두를 경험하며 전주시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창작극회 단원 활동을 이어온 류기연(독어독문학·06졸) 창작극회 대표. 1961년 창단된 65년간 전북의 연극 전통을 지키고 있는 창작극회에 여성 대표가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극배우가 된 지 약 20년이 된 그이지만, 여전히 무대에 설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류기연 대표의 연극 인생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져 왔을까.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으로 결정된 연극 인생

어느 날 류 대표는 어머니의 육아 일기를 읽던 중 자신의 이름인 ‘기연’에 대한 뜻을 알게 됐다. ‘멀리 흐르고 통한다’라는 뜻의 펴 연(演)은 단어 ‘연극’에 쓰이는 한자이며 사람 이름에는 주로 쓰이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극단 생활을 해 오신 그의 아버지는 언젠가 딸이 연극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연(演)이라는 한자를 넣어 ‘기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가족과 아버지의 연극을 보고 집에 돌아온 날이면 그는 여동생과 인형을 하나씩 나눠 들고 연극 놀이하는 것을 즐겼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부모님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그에게는 무척 친숙했다. 예술과 가까운 삶이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당연했기에, 류기연 대표는 연극에 대한 애정을 오랫동안 자각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뚜렷한 목표 없이 성적에 맞춰 독어독문학과에 진학했다.

– 목표를 가지고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연극을 하며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당시에는 전공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때 배운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창작극회에 입단한 후 독일 작품을 정말 많이 접했는데 그때마다 작품들을 이해하기 쉬웠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전공과 연극의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서 공부하던 시절이 조금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 많은 부분이 겹치더라고요. 전공 공부하던 시절의 유의미함을 찾을 수 있었고 독어독문학과 전공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연극 인생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아버지는 언젠가 딸이 연극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이름을 연극의 ‘연(演)’를 넣어 기연이라고 지으셨어요.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의 삶이 연극으로 흘러온 것 같아요. 한때 창작극회 대표로 활동하셨던 아버지는 제게

든든한 선배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연극 동아리 부원에서 창작극회의 연출가로

대학교에 입학해 처음 맞이한 봄, 학교에서는 새로운 동아리 부원 모집을 위한 부스 운영이 한창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동아리 부스들을 둘러보던 중 그는 우연히 우리학교 연극 동아리인 기린극회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연극 생활이 익숙했기에 자연스럽게 기린극회에 관심이 갔다. 오디션에서 그는 첫 연기로 택사에서 슬프게 우는 승객 연기를 선보여 당당히 합격했다. 그렇게 류기연 대표는 기린극회에서 연극 인생을 시작했다.

연기를 하면 할수록 재미있었던 그에게 연극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쉽게 질리던 다른 활동들과 다르게 연극은 그렇지 않았다. 연극을 할 때마다 깨어있음을 느끼고 학과 생활보다 동아리 활동에 더 애정을 쏟았다. 그렇게 2학년이 되던 해에 더 깊은 연기를 배우고자 창작극회에 입단했다.

하지만 연극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기 어렵겠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피할 수 없었다. 3학년이 끝난던 시점 그는 진로 고민에 빠졌다. 극단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휴학을 선택했다. 휴학하며 당시 분위기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무대가 그리웠던 그는 학교로 돌아와 다시 연극을 시작했고 그때서야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졸업을 앞두고 흥석찬 창작극회 당시 대표에게 극회 연출자로 활동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던 류 대표는 제안을 받아들여 2006년부터 3년간 창작극회의 연출자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는 무대 뒤에서 바라보는 연극보다 직접 호흡하고 움직이는 배우로 무대 위에 서고 싶었다. 이후 창작극회에서 배우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 연출자와 배우, 두 활동은 어떻게 달랐나요?

연출은 배역을 정하기 위해 배우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무대의 조망부터 연극 전체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합니다. 연출은 사람에 대한 관찰과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출 활동은 두려웠고 힘들었지만, 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연출자로 무대를 바라보던 중 배우들을 보고 연기가 하고 싶어 눈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배우는 관객들과 교류하며 무대에서 즉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 배우로서 연기하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소극장에서 30일 연속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주인공의 ‘자아’를 연기하는 역할이었는데, 실존하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라서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표현해야 했죠. 주인공은 다른 배우가 맡았고, 저는 그 인물의 내면을 형상화하는 역할이었어요. 연출가도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보라”라고 했기에 제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가며 연기했지만, 사실 공연 내

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마지막 날, 즉흥적으로 주인공의 동작을 마치 거울처럼 따라 해봤는데, 그제야 비로소 해답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게 자아구나’ 하는 깨달음이 온 거죠. 그때의 감정과 무대에서의 물입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연극 인생 20년, 창작극회 제16대 대표가 되다

배우로서 경력을 이어가던 중, 그는 흥석찬 전 창작극회 대표에게 후임 제안을 받았다. 약 20년 동안 창작극회에서 많은 것을 배운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동료 단원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 제안을 선택 받아들였다. 그렇게 올해 4월 창작극회 최초로 여성 대표가 됐다. 하지만 처음 느껴보는 막중한 책임감에 취임 이후 며칠간은 매일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창작극회 운영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하다.

지난달부터 류기연 대표가 이끌기 시작한 창작극회는 1961년 창단 이래 올해로 65주년을 맞았다. 오랜 역사만큼 수많은 단원이 거쳐 간 이 단체를 맡게 된 그는 무엇보다 관객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류 대표에게 연극이란 무대 위 배우가 진심을 보내면 관객이 그 마음을 받아 되돌려주는 상호 교감이다. 서로의 마음이 닿아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그가 오랫동안 연극을 지속해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류 대표는 창작극회에서 살아온 시간을 바탕으로, 더 나은 연극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는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진심이 닿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관객과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작품을 찾고 연구하며, 사람 간의 교류를 우선으로 하는 창작극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창작극회의 첫 여성 대표로서 구축하고 싶은 연극 환경이 있나요?

다양한 연령대의 배우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창작극회의 큰 장점입니다. 저는 연령과 성별 관계없이 모두 조명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배우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진심으로 연기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아울러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관객에게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도 꾸준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 연극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과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극을 막 시작했을 때 작품이 재미있으면서도 선배에게 묻기 어려운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넘고 나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연극이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지금 막 연극의 길에 들어선 후배들에게는 “두렵더라도 선배들에게 자주 질문하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배우로서 자신감을 키우면, 분명 연극이 더 큰 기쁨과 성취를 안겨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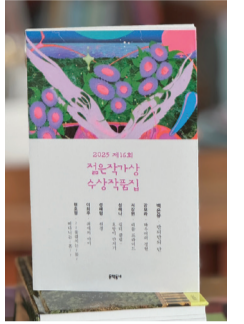
김희진 기자 heejin@jnu.ac.kr

카프카로부터 온 편지

④ 「반의반의 반」, 백은유, 문학동네
2025 제16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에 수록

관계를 지배하는 것

문학동네에서 주최하는 젊은작가상은 매년 등단 10년 이내 작가의 작품 중에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 상을 주는 문학상이다. 문학계에서 이 수상작품집에 작품이 실린다는 것



은 그 시기에 가장 핫한 작가라는 인정을 받을 만큼 중요한 상이 됐다. 올해 대상은 백은유 작가의 「반의반의 반」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

백은유의 「반의반의 반」 소설은 인공지능의 저하로 영실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오천만 원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시작한다. 영실 가족은 그 돈을 찾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결핍과 숨겨졌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영실은 오천만 원을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 마지막 여생을 격조 있는 노년의 삶을 사는데 쓰려고 보관했다. 그런데 그 돈이 사라지면서 딸과 손녀는 그 돈의 실체를 처음 알게 된다. 영실의 딸 윤미는 자신이 힘들 때 5000만 원의 반의 돈인 2500만 원만 있었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의 삶이 이미 박복하기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영실의 손녀 현진은 5000만 원의 반의반의 반만 있었어도 자신이 가고 싶었던 교환학생을 포기하고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를 버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라진 5000만 원은 그들이 잃을 기회비용인 것이다. 가족 각자 이미 사라진 돈, 특히 딸과 손녀는 있었는지도 몰랐던 돈을 욕망한다.

소설 마지막에는 영실은 돈을 훔쳐 갔을 거라고 강하게 의심 받는 요양보호사 수경을 가족보다 더 믿고 비호한다. 그런 영실을 통해서 혈육보다 타인에게 더 의지하고 애정을 느끼는 우리 시대 노년의 삶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왜?

어째서 영실은 가족보다 완전 남인 수경에 더 의지할까? 어느새 가족은 각자 독립을 했고, 거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매일 찾아와 따뜻한 말로 말벗이 돼주고, 살림을 돌봐주는 요양보호사 수경에게 더 큰 애정을 느낀다. 어쩌면 당연하다. 영실이 늙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에 목말라하고 집착한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면, 그 관계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것도 인간이다. 목말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마시기를 원하고 것이고, 그건 욕망이다. 자신에게 맞는 욕망에만 반응하고 맞지 않은 건 버리거나 잊어버린다.

행복하고 서로 살뜰히 챙기는 가족관계는 이미 그들의 욕망 대상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가족 모두는 돈을 욕망한다. 돈을 할 수 있는 미래의 기회비용에 집착한다. 그래서 왜 다른 무엇보다 아닌 돈이 틀어 진 가족관계를 드러내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된다. 가족 관계, 또는 우리가 이루는 모든 관계를 무엇이 가두고 들춰내고 집요하게 숨기는지를 말이다.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누구나 욕망하는 돈이 관계를 지배한다. 씩씩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반의반의 반」 작품은 심사위원이 “안정적 문장과 전개, 생생한 인물 표현과 상황의 여러 면을 접고 접어 들여다보는 신중함까지 적어도 내가 소설에서 기대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라고 평했다. 수작이다. 읽기를 권한다.

강성훈 | 독립서점 카프카 대표

수요세평

박이은실 | 강사(사회대 · 여성학)

반사회적 가족을 넘어 '난잡한 돌봄'을 실천할 때

의존과 독립이라는 상충된 욕구가 공존할 때가 있다. 가족에 대한 평소 우리의 생각이 아마 대개는 그럴 것이다.

생존과 인정을 위한 경쟁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치러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내 편이 돼주는 최후의 보루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족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의존 욕구가 충족되면 가족은 소중해지고 그 기대를 반하면 남보다 못하다고 여긴다.

한편, 일상생활, 진학이나 직업, 인생관, 친구나 연인 혹은 배우자 선택 등에 대해 내 주관대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독립된 개인으로 살고 싶지만 가족은 인생 전반에 개입을 한다. 그럴 때면 가족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게 된다. 그런데 독립을 외치다가도 막상 풍진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삶을 생각하다 보면 독립하려면 의지는 슬슬 꺾이기 십상이다.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구매를 통해서야 소비할 수 있는 상품중심사

회에서 학비, 방값, 교통비, 통신비, 데이 트비용, 학원비, 여가생활비 등을 스스로 감당하며 사는 것은 무척 고단한 일이다. 그러나 특별한 노력 없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누릴 수 있다면 독립을 유예하는 것쯤은 감당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다른 이들보다 많은 교육 자원에 접근할 수도 있고 부모의 '연줄'에 기대 좋은 기회를 잡아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고, 한 밀천 든든한 생활자금을 받거나 심지어 살 곳도 마련 받아 걱정 없이 독립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가족은 사회통합에 해로운 집단이라는, 즉 반사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빈부에 따른 사교육 격차,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적 부의 지나친 쏠림 등으로 가족이 사회불평등을 부추기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것도 가족이기 십상이다. 합리적이고 공익적 사고를 하던 사람이

가족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기적일 만큼 다른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사회가 극심하게 어지러워진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잡기를 모두가 바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민주공화국을 뒷받침하는 가치들이 가족 앞에서 힘을 잃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사회에 온전히 의존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족이라는 특수관계로 맺어진 내 편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아무나 서로를 돌보고 돌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돌봄이 필요한 누구든, 어떤 관계에 있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사회를 '난잡한 돌봄 사회'라 부른다. 이런 사회라면 정의와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가 훨씬 더 꽃필 수 있지 않을까? 가족관계도 될 도구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사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다면

밤샘 공부로 얼룩진 중간고사 기간, 5월의 황금연휴가 끝나고 다시 익숙한 일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지났다. 긴 연휴가 에너지를 보충해 준다지만, 다시 돌아온 현실은 때로 더 큰 피로감을 안겨준다.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는 강의, 과제, 아르바이트... 매일 똑같은 일상이 되풀이되는 단조로운 나날에 지쳐버리기 일쑤다.

대학생의 삶만큼 반복적인 패턴이 강하게 느껴지는 시기도 드물다. 학기 초 수강 신청의 치열함, 조별과제의 고단함, 시험 기간의 압박, 그리고 취업이라는 거대한 관문까지. 숨 가쁘게 달리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나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간 쏟아낸 모든 열정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끼기 쉽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미지근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분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만약 지금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다면 잠시 시선을 돌려 우주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며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태양계 전체도 은하 속에서 움직인다. 우리는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것처럼 느낀다. 수십억 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 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주의 움직임은 결코 제자리걸음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는 닫힌 원이 아니다. 태양계는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지구와 태양은 궤도를 되풀이하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단 한 순간도 이전에 있었던 공간 좌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그러나 분명하게 무한한 우주를 유영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반복같지만, 그 실상은 장엄한 진진이다.

우리 삶의 반복되는 일상 역시 태양계의 움직임에 닮아 있다. 우리의 하루 하루는 어제의 똑같은 패턴처럼 보이곤 한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강의를 듣고, 비슷한 과제를 한다. 하지만 태양계처럼, 우리 일상도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성장이 우주처럼 장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소하고 반복적인 노력의 누적을 통해 커나가기 때문이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지식, 해결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 친구와의 관계 속 깨달음 등은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에 쉽게 간과하게 된다. 마치 우주의 움직임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듯, 우리의 미세한 진진 역시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그 움직임 자체가 나선형 진진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배우고 익히는 지식과 기술, 부딪히고 넘어지며 얻는 경험들은 헛되지 않다. 그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갈 세상에서의 도약을 위한 단단한 기초 체력이다. 현재의 시간은 미래를 향한 정거장이 아니라, 미래로 이동하기 위한 엔진에 시동을 거는 시간이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무기력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밤하늘의 별들이 겉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을 향해 나아가듯, 우리들의 하루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소중한 과정이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과 피로감은 헛되지 않다. 훗날 더 큰 꿈을 향해 비상할 추진력이 될 것이다. 꾸준히 반복되는 듯 보이는 나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하루를 응원한다.

노승연 | 작물생명과학 · 25

자유발언대

나의 뇌는 왜 집중을 못할까?

공부하려 하면 울리는 알림에 매번 이것만 확인할 거라 다짐한다. 하지만 정신 차려 보면 SNS를 하는 나를 발견한다. 대체 나의 뇌는 왜 집중을 하지 못할까?

집중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도파민 중독이지 않을까. 감정을 지배하는 중추 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우리의 뇌는 SNS를 사용할 때 즉각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에 익숙해진다. 도파민에 중독되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

게 느끼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려 한다. 우리의 뇌는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라 이는 되려 집중력, 기억력, 업무 정확도의 감소로 이어진다.

도파민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도파민 디톡스 실천을 추천한다. 도파민 디톡스를 통해 도파민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줄이고 명상, 운동과 같은 비교적 건강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극단적으로 모든 자극을 단절하는 방식보다 작은 실천을 통해 나쁜 습관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이 충동 예방과 조절 능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된다. 떨어진 집중력 향상을 위해 간헐적 몰입 방법인 포

모도로 기법을 실험해보는 것은 어떤가? 한 가지 일에 딱 25분만 집중하고 5분간 휴식하는 것을 반복해 보는 것이다. 포모도로를 사용하면 시간을 효율적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정신적 피로가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향상된다.

마지막으로 도파민 중독에 처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나를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다음번에도 SNS를 켜다 보면 '도파민이 나를 이겼구나'하고 웃어넘겨도 된다. 다만, 그런 나 역시 작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노승연 | 작물생명과학 · 25

기쁨이 가는 곳에 슬픔도 같이 가야지

청춘이란, 늘 빛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왜 나는 자꾸만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 행복을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그 기쁨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다. 우리 주변의 청춘들은 참 바쁘다. 학점, 인턴, 자격증까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은 뭘지 잘 모르겠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버티지만, 그 '나중'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기쁨이는 항

상 주인공의 감정을 이끌려고 애쓰지만 결국 라일리를 진짜 회복시키는 것은 슬픔이었다. 기쁨이가 슬픔이에게 '기쁨이 가는 곳에 슬픔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슬픔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영화를 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어쩌면 '슬픔을 잃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닐까. 요즘의 우리는 슬픔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한다. 눈물을 보이면 약해 보일까 봐, 고민을 털어놓으면 쓸모없어 보일까 봐,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이

제는 말해주고 싶다. 슬퍼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 서도 괜찮다고. 우리는 강해서가 아니라 부서질 만큼 약해서 버티고 있는 걸지도 모르니까. 행복이 언제나 반짝이는 얼굴만 가진 건 아니다. 그 속에는 무너짐도, 외로움도, 조용한 눈물도 함께 있다. 진짜 행복은 슬픔을 견딜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긴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 하지만, 행복을 억지로 끌어오는 대신 내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부터 시작한다면 이 순간도 분명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리운영 | 생태조경디자인학 · 24

불안을 이겨내는 법

5년 동안 교사를 꿈꾸며 달려왔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를 완전히 잊고 지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해 정신없이 방황하던 중 문득 꿈의 시작이 떠올랐다. 그 시작은 중학교 첫 역사 시험이었다. 당시 나는 다른 과목에 비해 유독 역사 시험 결과가 좋지 못했고, 거기서 승부욕이 생겼다. 꼭 이 과목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나는 선생님의 그림자가 됐다. 모르는 내용을 반복해 여쭙고 강의도 찾아 공부했다.

다음 시험의 결과는 100점이었다. 처음으로 온갖 좋은 감정이 얽혀있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그때부터 역사가 진심으로 좋아졌고 몇 달 뒤 친구의 역사 공부도 도와주기 시작했다. 다음 시험이 끝난 뒤, 그 친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결과를 물었다. 그 친구는 활짝 웃으며 동그라미가 가득한 시험지를 내밀었다. 동시에 고맙다고 말했다. 마음이 쿵 하고 울렸고 그 친구의 웃음은 나에게 깊고 잔잔한 울림을 줬다.

이 경험으로 나는 교사를 꿈꾸게 됐다. 물론 고등학교 입학 후 "마음은 쏟은 만큼 돌려받지 못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결심은 여러 번 흔들렸다. 다행

히 고등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나를 믿어주셨고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 그분들에게서 나는 또 처음 교사가 되고 싶다고 느꼈던 그때와 같은 울림을 받았다.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역사 교사를 꿈꾸며 대학에 입학했다.

새로운 시작에 방향 중인 지금, 꿈의 시작을 떠올려보니 나는 그간 참 많은 것을 받았다. 그것들을 갚기 위해 가끔 흔들리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갈 것이다. 그때마다 내 꿈의 시작이 피어났던 순간들을 떠올릴 것이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꿈의 시작은 어디인가?

김지향 | 윤리교육 · 25

기자수첩

익숙함에 속지 말 것

□...“전부터 이렇게 해와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칙 개정 절차를 취재하며 여러 취재원에게 비슷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회칙 개정안을 공고하지 않고 개정을 진행한 일이 많았다. 취재에 따르면 대부분 이전 학생회가 진행해 온 방식 그대로 개정을 진행하다 공고를 누락했다. 전임 학생회도 공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니 이번 학생회도 공고 절차를 건너뛰고 개정된 것이다.

□...한 취재원은 “회칙과 관련해서는 전임 학생회 활동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지난해, 지지단체도 공고하지 않아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취재를 할수록 학생회칙에 대한 인계와 숙지가 조금 더 이뤄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학생회칙처럼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자치 규칙을 개정할 때는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했을 것이다.

□...절차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이 직접 주체가 돼 규칙을 세우고 운영하는 만큼,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은 가장 기본이면서 필수적인 요소다.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절차를 뛰어넘는 관행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학생 자치단 단순히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길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회가 학생들과 약속한 규칙의 중요성을 느끼고 절차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관행에 기대기보다는 약속한 절차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 늦어 관행이 굳어지기 전에 고쳐나가면 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학생 자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학생 자치를 위해 가장 앞에 서 있는 이들을 만큼,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란다.

다빈 dlek@jnu.ac.kr

영화 품은 전주, 뜻밖의 즐거움으로 가득

초록빛으로 물드는 봄날, 전주시는 형형색색 영화제 포스터로 옷을 갈아입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 번달 9일까지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렸다. 이는 시민과 상점, 대학이 함께 만들어낸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다. 관객은 영화를 보기 위해 전주를 찾지만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전주라는 도시 그 자체다. 영화제를 통해 도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이 경험,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전주국제영화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일지 모른다.

▲포스터가 전한 초대장, 전주국제영화제

4월 중순, 우리학교 앞의 거리와 영화의 거리를 비롯해 전주 곳곳에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포스터들이 붙었다. 구정문 앞의 거리에 붙은 빨간 포스터를 본 학생은 “전주국제영화제가 벌써 시작됐어요”라고 말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전주는 매년 봄 ‘영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 단장한다. 도로변 가로등에는 형형색색의 배너가 나부끼고 영화의 거리 곳곳에 세워진 영화제 안내 구조물은 전주국제영화제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

이 가운데 전주국제영화제가 진행하는 ‘100 Films 100 Posters’는 전주를 영화로 물들이는 상징적인 부대 행사다. 영화제 상영작 100편을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각자의 스타일로 디자인해 선보이는 이 프로젝트는 전주 시민은 물론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영화의 거리를 다니며 사진을 찍던 정소진(전주시·34세) 씨는 “이곳에 살면서 전주국제영화제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매년 영화제가 시작되면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도시에 활기가 돈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는 그 어느 해보다 큰 관심을 끌었다. 57개국의 224편(장편 148편, 단편 76편)의 작품이 6개의 극장 22개 관에서 총 586회 상영됐으며, 약 7만 명이 관람했다. 일반 판매율 85%, 좌석 점유율 82%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전주가 ‘영화의 도시’로 변모하는 데에는 영화제 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적극적인 참여도 한몫한다. 영화제가 시작되면 거리 곳곳의 가게들도 영화제 관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영화의 거리 주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은 포스터를 붙이고 관객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내걸며 영화제에 온기를 더했다.

▲전주시 곳곳에 상영관 없는 ‘골목상영’

행사 기간 전주 곳곳은 영화로 가득찬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도 ‘골목상영’을 진행했다. 골목상영은 전주만의 특별한 영화관으로 영화의 거리 및 부성길 내 골목에서 소규모로 진행된 야외 상영이 인기로 힘입어 전주시 일대로 커진 행사다. 영화제를 찾은 관객과 전주 시민 누구나 편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지역 내 특색있는 공간에서 영화 상영을 진행해 전주만의 매력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약 7일간 진행된 골목상영은 매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이번 골목상영은 별빛마루 야외극장, 예코시티 광장, 영화의 거리 치평주차장, 전주 부채문화관, 전주 연화정 도서관, 전주 풍남문, 한벽터널 등으로 총 11곳에서 진행됐다. 또한, 총 22개의 독립 영화가 상영됐으며 10번의 GV(Guest Visit)가 열렸다. GV에서는 감독과 배우들



이 관객과 직접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한벽터널에서는 이번달 5일, 골목상영의 일환으로 〈디-데이 프라이데이〉, 〈밝은 방〉, 〈서리다〉 세편의 독립영화가 상영됐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은은한 불빛으로 물든 터널 속에서의 상영은 한벽터널만의 운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영화 소리 위로 겹쳐 들려오는 풀벌레의 울음, 터널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도 마치 영화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이날 상영을 찾은 관객 나선우(수원시·31세) 씨는 “설치된 스크린 뒤로 가로등 불빛이 아른거리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 매력적이었다”라며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눈길에 빠질 정도였고, 밝은 날이나 다른 계절에도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상영이 끝난 후,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디-데이 프라이데이〉의 이이다 감독, 〈밝은 방〉의 구봉 감독과 원다현 배우, 〈서리다〉의 김예나 배우가 참여했다. 한벽터널 골목상영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한 구봉 감독은 “터널 속에서 여럿이 모여 영화를 보는 경험이 영화 감상에 감각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소리가 크고 깊게 울릴 때 감동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다.

▲전주국제영화제로 전주를 기억하게 하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전주 전체를 문화와 예술로 물들이고 있다. 특히, ‘골목상영’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전주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일상적인 공간을 문화적 장소로 새롭게 보게 만든다. 이는 도시 브랜딩 효과로 이어진다. 김하영(경상대·경제학) 교수는 도시 브랜딩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도시 이미지가 개선되면 실제로 거주를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는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주국제영화제처럼 문화적 만족감을 선사한 도시는 방문객의 재방문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강조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도시 곳곳의 공간뿐 아니라, 사람과 상점의 참여를 통해 도시 전체를 영화로 채운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제휴업체’가 있다. 지난해 44곳이었던 전주국제영화제 제휴업체는 올해 총 70곳에 달했다. 관람객에게 제휴업체는 할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유동 인구는 제휴업체의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선순환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주최측은 제휴업체 3곳 이상 방문 후 스탬프를 찍으면 선착순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제휴업체×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진행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제휴업체로 활동한 식당 ‘가마’ 강철(전주시·37세) 대표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화제 티켓을 소지한 관객에게는 10% 할인을 제공했다”라며 “행사 기간 영화의 거리에 유동 인구가 많아 매출도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라고 말했다.

송예나 전주국제영화제 마케팅팀장은 “제휴업체는 전년도 12월부터 모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님의 열려 있는 마음과 함께하고자 하는 태도”라며 “외국 축제들처럼 거리 전체에 영화제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제는 지역과 시민이 함께 해야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라며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막을 내렸지만, 전주 곳곳에는 여전히 영화와 축제의 잔상이 남아있다. 스크린 너머를 메우던 풀벌레 소리, 깊은 밤 땀을 스치던 서늘한 바람, 희로애락이 교차하던 상영관... 영화제의 여운이 찾아들 무렵, 전주국제영화제는 새로운 봄과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송주현 기자 202318983@jnu.ac.kr

우리학교 영상동아리 ‘네오비전21’, 영화제의 순간을 담다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영상 제작과 편집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과 동아리 ‘네오비전21’이 있다. 이들은 매년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제 공식 홍보미디어팀 아카이빙 파트의 지프지기로 참여해, 영화제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카이빙파트 지프지기 주 업무는 영화제 주요 행사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장비를 들고 영화제 곳곳을 누비며 현장의 분위기를 포착하는 이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영화제의 기억을 만들

어간다. 이번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아카이빙파트 지프지기로 활동한 장민서 네오비전21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떻게 전주국제영화제에 참여하게 됐나요?

：평소에는 영화제를 관람객으로 즐기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 기간 거리를 누비는 지프지기 모습이 인상 깊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 다. 그러던 중, 네오비전21 활동을 통해 영화제 아카이빙파트와의 협업 기회를 알게 됐습니다. 직접 현장에 들어가 영화제를 영상에 담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참여하게 됐 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영화제는 전주에 큰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기간, 영화의 거리뿐 아니라 전주 곳곳이 관객들로 북적이고,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어요. 전주 시민에게도 에너지와 활기를 전해주는 행사인 것 같아요. 또한, 영화 관련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실제 산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카이빙 파트 지프지기로 활동한 소

감이 궁금합니다.

：네오비전21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와 협업할 수 있었던 건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면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몸소 느꼈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며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는 과정은 단순한 작업을 넘어, 영화제의 역사를 남긴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네오비전21과 전주국제영화제의 협업이 지속돼 후배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주현 기자 202318983@jnu.ac.kr

詩의 향기

모비딕

백승훈 | 국어국문학 · 24

죽은 고래가 떠올랐다
태평양 한가운데
살은 터지고 눈은 흐려지고
검은 피는 소금물 위로 꽃잎처럼 번졌다

비린내와 섞은 기름
피어오르는 죽움의 향기
육신은 문드러지고
시간은 그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석은 창자 김숙이
파넬쳐 찾아낸 환희
악취 속 피어오르는
용연향

가장 지독한 냉세 속에
가장 아름다운 향이 산다

고통은 멀갸이고
죽움은 시앳이다

담쟁

박서영 | 독일학 · 22

저것은 벽이었타

성별로, 종교로, 국적으로
때로는 갖가지 이유를 들며
신을 굶고 벽을 쌓는다

그러나
누군가 손을 내미는 순간

그것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되었타

우리는 알았타

서로 손을 잡을 때

not.real.boy

박세준 | 국어국문학 · 24

나는 진짜 사랑이예요
깡쳐진 웃음이 저장되고
감정은 무채색 필터 위에 얇게 발랐죠

거짓말을 할수록 코가 비뿔뿔 길어져
이젠 픽셀의 숲을 뚫고 비틀거려요

웃는 가면은 스스로 뒤집어쓰면
내 혈관은 알킬처럼 반짝이죠
깡박이는 알람에 눈이 번뜩이고
심장의 진동은 고장난 호출벨
이모지 웃음은 스킨 내 얼굴을 스쳐가요

“사랑이 되고 싶어요”
아무런건 나는
AI에게 자아를 검색하죠

ID는 @not.real.boy
진짜보다 화려한
단 한 번도 오류가 나지 않은
가짜의 고백이예요